

지역 소식통

김제시, 30만 필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

김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총 30만7,692필지에 대해 18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해당 토지의 m²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표준지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을 재조망하고 감정평가법의 재검증과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처리 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열람기간동안 '전문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세정과, 자동차세

연납신청 거리홍보 캠페인

김제시는 지난 17일,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맞아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세정과장을 포함한 세정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출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사자탑로터리, 흙플러스, 비사벌 사거리 일원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세정과 직원들은 현수막을 활용하여 연초 연납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올해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1년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납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5% 공제해주는 제도로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동차세 조기 징수로 시 재정운영 안정성 확보 및 체납 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꽃빛드리축제 내달 3일 개막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서 '꽃빛랜드' 콘셉트로 개최

공간 연출·공연·체험·먹거리 등 '복합문화축제' 마련



김제시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2026 김제 꽃빛드리축제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꽃빛드리축제는 주민이 직접 행사 기획과 공간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 올해에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봄날의 놀이동산, '꽃빛랜드'로 변신한다. 시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 빛과 공간 연출, 다채로운 공연, 체험, 마켓 등이 결합된

완성도 높은 '복합 문화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테마로 나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됐다. 짙은 순간 인생샷! 감성 폭발 '포토 & 라이브' 축제의 관문인 '플라워라이프 센트럴'에는 꽃을 주제로한 메인 게이트와 유럽 분위기의 노천카페, 꽃집이 조성되어 감성적인 사진을 남길 수 있으며, 방문객들이 직접 소원을

남길 수 있는 꽃빛 소원길도 운영된다.

아이들의 천국! 가족 맞춤형 놀이공원, 소규모 놀이공원 형태의 '액티비티 & 플레이존'에는 다양한 키즈 어트랙션(회전목마, 바이킹 등)이 마련되며, 특히 관내 3세~7세 유아들이 참여하는 '제2회 꼬비 선발대회'는 귀여운 의상 심사와 장기자랑 등이 예고되어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흥 폭발! 라이브 공연 & 체험형 마켓, '스프링 워드 스테이지'에서는 유명 유튜버와 함께하는 거리 노래방, DJ가 진행하는 랜덤 플레이 댄스 등 관람객 참여형 무대가 펼쳐지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거리형 프리마켓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일상의 힐링 타임, 편백의 향과 여유, 미식(美食)의 향연, 신나게 축제를 즐긴 후에는 편백 숲에 마련된 '에코 포레스트 라운지'에서 자연 속 여유를 만끽할 수 있으며,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된 로컬마켓이 상춘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시는 행사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을 대비해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교통 통제 인력을 운영 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전북도 및 5개 시군과 홍보·체험 부스 운영

김제의 매력 알리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 총력

김제시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 마곡 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김제만의 관광 매력을 선보이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을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국내 여행박람회로, 전국 200여개의 기관이 참여해 300여개의 부스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박람회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전북도 및 5개 시군과 공동으로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총력을 기울인다.

김제 쌀과 들깨를 이용한 '쌀·들깨 강정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해 방문객들이 김제의 맛과 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SNS팔로우 이벤트 등을 통해 관람객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지역 농가의 정성이 담긴 우수 농특산품을 전시해 김제 농산물의 뛰어난 품질을 홍보할 계획이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 행사와 더불어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김제시 주요 관광지 모습을 담은 홍보 영상 상영 및 대한민국 대표 명품 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 홍보를 통해 풍성하고 아름다운 휴장 김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청소년 자기주도 봉사 공모 선정

관내 4개 기관에서 5개 동아리 대거 선정 쾌거

완주군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 활동 동아리 지원 사업' 공모에서 대거 선정되며 이서청소년문화의집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봉사 활동을 기획·실현하며 지역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마련됐다.

도내 총 14개소의 동아리가 선정된 가운데 완주군은 무려 4개 기관에서 5개 동아리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도내 시·군 중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선정된 기관과 동아리는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의 '모두의 이용을 기본으로',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의 '스마트 안전지킴 봉사단',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의 '행·세·꿈'을 비롯해 완주군 이서청소년문화의집의 '리본'과 '환경이 갑이다' 등 총 5개 사업이다.

이들 동아리는 향후 지역사회 밀착형 봉사활동과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직접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말까지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며 이동권리 옹호와 지역 공동체 의식 확산에 앞장서게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고운삼봉도서관, 7월 개관 준비 순항중

독서·육아·행정 기능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예정... 5월 임시개관 예정

완주군 삼봉신도시의 지식문화 랜드마크가 될 고운삼봉도서관이 오는 7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운영 시스템 점검 등 막바지 개관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고운삼봉도서관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09㎡ 규모로 조성했으며, 올해 1월 건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도서관은 독서와 육아·행정 기능이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1층에는 삼봉민원센터와 커뮤니티 공간, 공부방을 배치해 주민 편의를 높였으며 2층은 어린이자료실과 공동육아나눔터를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3층은 일반자료실과 청소년존, 다목적강당, 문화강좌실을 갖춰 전 세대가 아우르는 문화향유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현재 완주군은 가구 배치와 개관 도서 구입, 운영 비품 마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어린이와 삼례동초등학교가 운영 중이다. 아울러 2028년 삼봉중학교(가칭)가 개교할 예정이어서 고운삼봉도서관은 향후 지역 주민의 교육과 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삼봉자구는 현재 4,419 세대, 9,3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삼봉유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 봄맞이 생명나눔사랑의 헌혈

시청 주차장서 '사랑의 헌혈버스' 오전10시~오후 4시 운영

김제시는 전북혈액원과 함께 혈액수급 위기에 따른 혈액 보유량 부족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19일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헌혈버스'는 '헌혈의 집'이 상설 운영되지 않는 김제 시민의 헌혈 편의를 위해 운영되며 헌혈 버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앞 주차장에서 운영(접심시간 11:30~13:00 제외)된다. 헌혈을 희망하는 16세 이상 69세 미만 건강한 시민이면 /김제=곽노태 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헌혈은 사람을 살리는 실천이다. 인간의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이를 대체할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혈을 통한 수혈만이 혈액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편 사랑의 나눔 실천 헌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의약관리팀(☎540-45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featuring a woman covering her face and text boxes detailing reporting procedures and benefits. Includes a 112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porting center.